

지역 소식통

고창군, 성진스님 하성용
신부 초청 군민행복 특강

고창군이 22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성진스님·하성용 신부를 초청해 마음챙김과 치유를 주제로 군민행복 고창포럼을 열었다.

성진스님·하성용 신부는 마음챙김을 강조했다. 두 강연자는 "일상에 지나치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며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해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것이 정서적·신체적 치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군민들은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의 행자가 못하고 지나왔던 감정들과 생각들을 다시금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비 4억원 지원

정읍시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억원의 시비로 진행되며, 약 4만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50두 이하), 젓소, 염소 등을 사육하는 1191농가이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1만원으로 농가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 사료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체가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면 시에서 농가가 제출한 구매 계약서 및 수량, 사육두수 등을 확인해 구매 계약한 사료 1포대당 200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축산농가는 오는 11월 1일까지 사료구매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해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청자, 국제도자박람회 큰 인기

중국 부안청자 홍보부스, 일 평균 1000여명 방문... 중국 타 박람회 초청 쇄도

한국을 대표하는 고려 삼강청자의 발생지 부안의 삼강청자가 중국 강서성 경덕진에서 열린 2024년 정대정 국제도자박람회에서 일 평균 1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부안군은 이번 박람회에 고려청자를 진품적으로 재현한 작품부터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이은규 사기장의 '청자삼강청경무늬매병' 등 5점을 비롯해 부안관요 및 부안도예가 협회 도예작가들의 작품 등 100여점을 선보였으며 고려시대 삼강청자 재현 작품이 전시돼 과거 한국으로 건너간 중국청자가 어떻게 삼강청자로 변모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돼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로 2회를 맞는 박람회는 국제도자기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한 곳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도예 행사로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2000여개 이상 세계도예업체와 150만여명의 관람객, 3500여명의 바이어가 찾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뤄지는 장소이다.

부안군 일행은 박람회 참가와 도계천 일원의 도자 관련 관광 및 산업시설, 도자전문 대학, 박물관 등의 견학을 통해 향후 부안 청자를 활용한 판

광화 및 산업화 옛 요업공장을 리모델링해 랜드마크화하고 관광지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인 도계천(타오스환) 문화산업기지(문화구역)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도자 관광지 및 산업지로 각광받는 원인을 분석해 부안군 현황에 맞게 접목할 계획이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닝보차박람회, 복건성공예미술관, 상하이차박람회 등 중국 타 박람회 및 예술기관에서 부안청자 홍보부스를 초청하는 등 부안청자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중국 CCTV 및 중국 JTV 장시성 방송국에서 독립방송으로 고려 삼강청자 발생지 부안을 홍보했다.

또 중국 후난성청자연구소에서 부안청자 홍보부스를 방문해 부안청자를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학, 동시”

부안군, 제2회 한국동시축제 11월 2~3일 개최

부안군과 한국동시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이 주관하는 '동심의 바다 부안' 제2회 한국동시축제(이하 한국동시축제)가 오는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부안군 석정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국동시축제에서는 △동시백일장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 △작가와의 만남 △동시놀이 △미술 세미나 △교사 대상 동시 세미나 등 어린이, 가족, 시인, 연구자 교사 등 동시에 관심있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동시백일장은 2일에 열리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초등부, 청소년부, 성인부로 나눠 운영하고 당일 부문별 수상자를 가려 장원에게는 아이패드 미니(초등부, 청소년부)와 상금 30만원(성인부)을 시상한다. 이어지는 학술세미나, 동시낭독 동시낭송,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현재 한국 동시문학을 이끌어 가는 대표 시인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우리 동시 여기까지 왔다'라는 주제로 송찬호·안도현 시인이 무대에 오른다. 3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동시로 끼와 에너지를 발산해보는 가족 창작동시 낭송

대회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 동시를 주제로 문학인과 예술인이 운영하는 동시체험부스(상시 운영)와 미술워크숍, 동시놀이, 어린이 동시마켓(상시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장 곳곳에 준비되어 있다.

개막과 폐막식에는 부안초 관악부(2일 개막공연)와 부안동초 초록빛 중창단(3일 폐막공연)의 축하무대로도 열릴 예정이다.

한국동시축제 배귀선·유강희 공동추진위원장은 2회째를 맞이하는 한국동시축제를 통해 "어른은 동심의 회복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학으로 '동시'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한강 작가를 잇는 미래 노벨문학상 주역들이 이곳 '한국동시축제'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백일장 및 가족 창작동시낭송대회, 학술세미나 등의 참여자 모집과 축제에 대한 정보는 (재)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70-4278-8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국 최초 숙박시설 어촌마을자치연금 '눈길'

고창군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 지역 주민 노후 보장·자생력 강화 위한 새로운 모델로

고창군 상하면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이 숙박시설로는 전국 최초로 어촌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해 지역 주민의 노후 보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어촌마을자치연금은 해양수산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5개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 9명에게 매달 7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넓고 아름다운 명사십리 해안가와 조개 캐기,

후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근 최신식 숙박시설이 준공되면서 즐겁거니, 볼거리와 더불어 편의시설을 강화해 고창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의 매력을 선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이 고창형 어촌마을자치연금사업 제1호로써 농어촌마을의 자립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 편의 최우선”... 이학수 정읍시장, 주요 사업장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은 10월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지난 21일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메이플 플라자 조성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 3개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의 준공 이전 진행 상황을 살피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각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리며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먼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현장



에서는 1년 이상 실적을 창출한 마을기업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서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메이플 플라자 조성 현장에서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입로 포장 작업을 신속히 완료하라"고 지시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는 기존 건물의 안전진단 등급을 확인한 후 활용 가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목을 제거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라"고 덧붙이며, 환경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악취 문제 해결 위해 민관 손잡고 나선다

악취대책 민과협의회 개최... 악취 저감 의견 수렴 정책 반영

정읍시는 지난 21일 송금현 부시장 주재로 3차 악취대책 민과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가축분뇨 배출과 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년 이어지는 악취 피해 신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22년 5월 발족 이후 2년이 지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으며, 송금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행정과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상생기구를, 환경 및 축산부서 공무원, 시민,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악취 배출 현황과 행정의 악취 저감 활동에 대한 추진사업 설명이 있었으며, 주민대표와 환경단체는 마을 인접 사업장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강령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생활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송금현 부시장은 "악취 문제는 사업주의 의식 개선과 시설 투자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축산농가 의식개선 교육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사 현대화 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